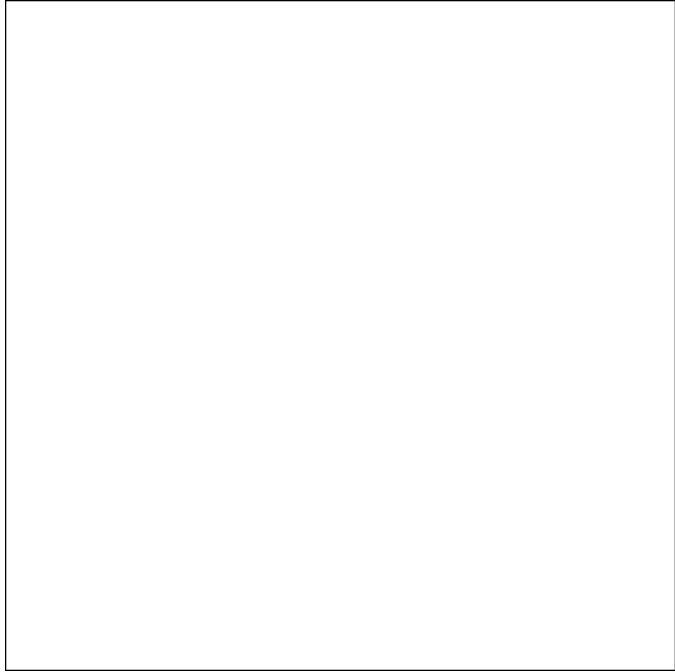




(imageless edition)

Lindiwe Matshikiza ✎
Meghan Judge 🗣️
Michelle Kim 🗣️
Korean 🗣️
Level 3 📖



음나귀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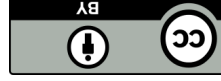
Storybooks Canada

storybookscanada.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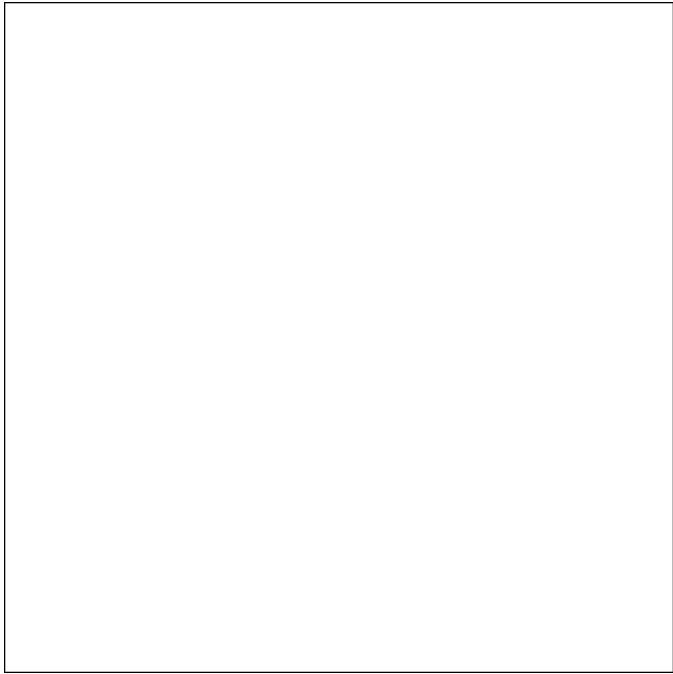
음나귀 아이

Written by: Lindiwe Matshikiza
Illustrated by: Meghan Judge
Translated by: Michelle Kim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Canada's many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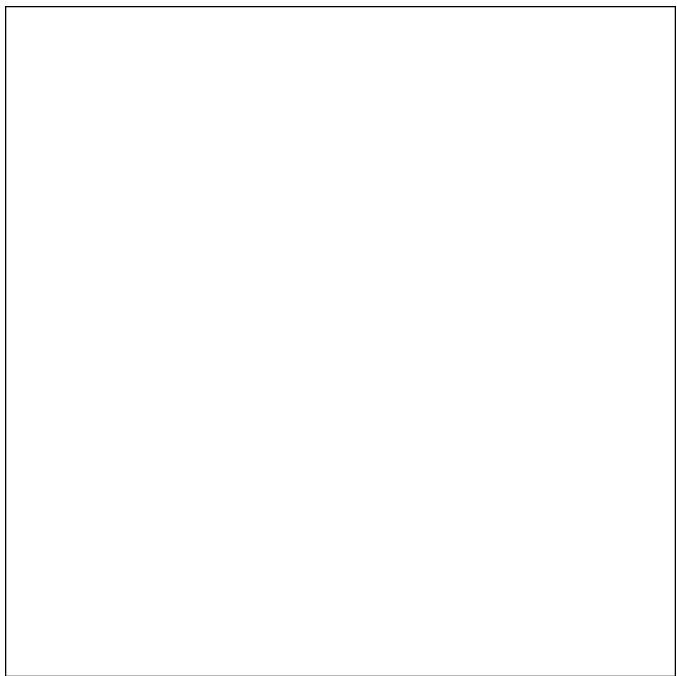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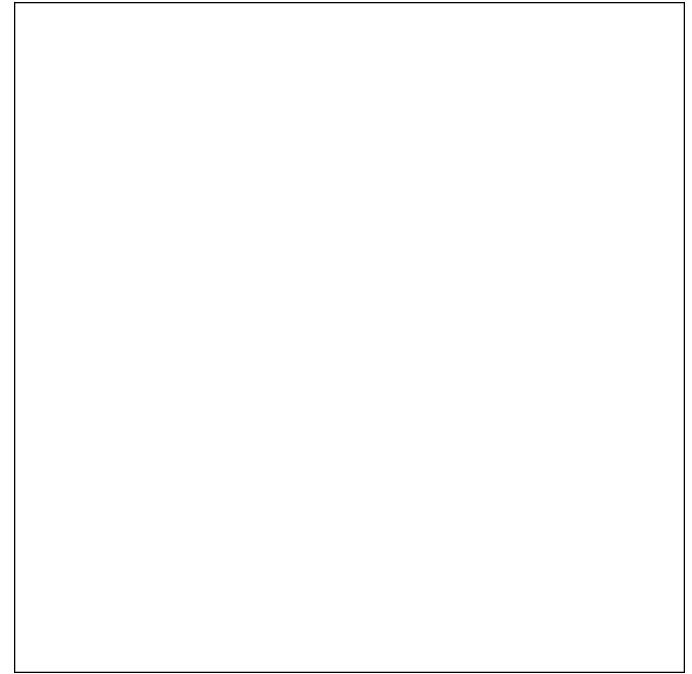
먼 곳에 이상한 모습을 처음 본 것은 어린 소녀
였어요.

그 모습이 가까이 다가올때, 소녀는 그 모습이
민신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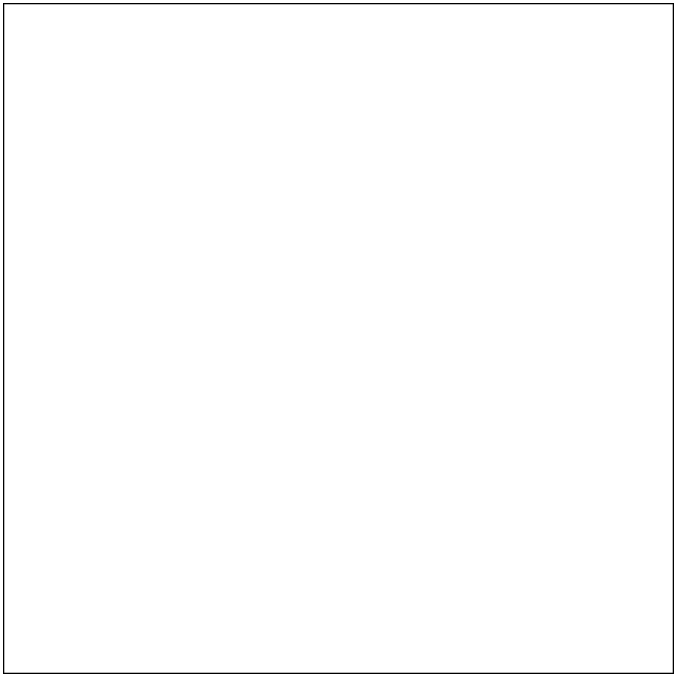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소녀는 그 임신한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를 이곳에 머무르게 해야겠다,” 소녀의 마을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안전하게 보살펴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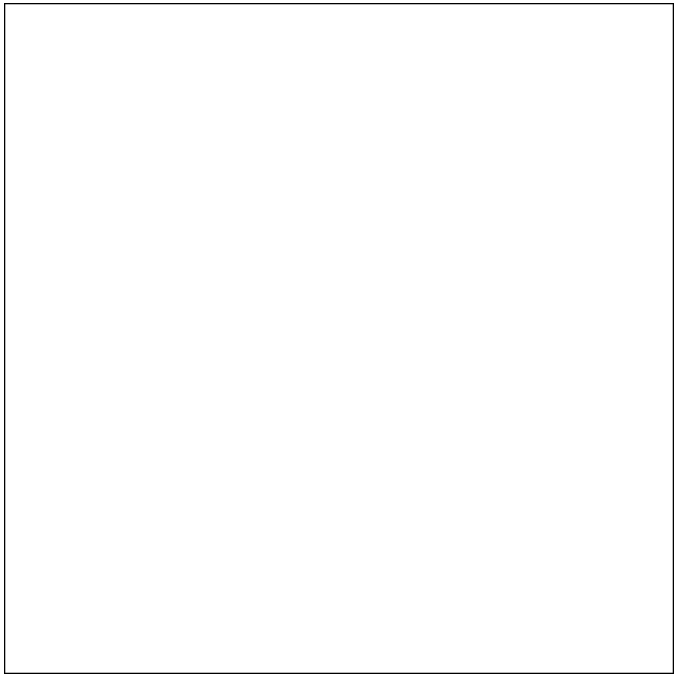


당나귀 아이와 그의 엄마는 함께 자랐고, 옆에서 같이 살아갈 많은 방법들을 찾았어요. 천천히, 당나귀 아이와 그의 엄마 주변에 다른 가족들도 곁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 아기는 태어나기 직전 이었어요. "힐춰!" "이름을 가져와!" "롬!" "롬!" "힐름 더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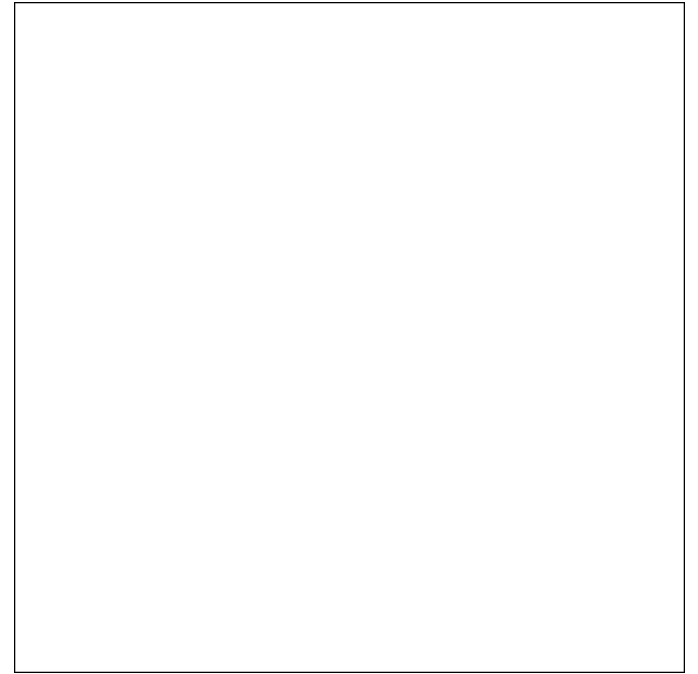


당나귀는 그의 어머니를 찾았고, 그녀가 혼자 서 피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당나귀와 그의 어머니는 서로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서로를 아주 편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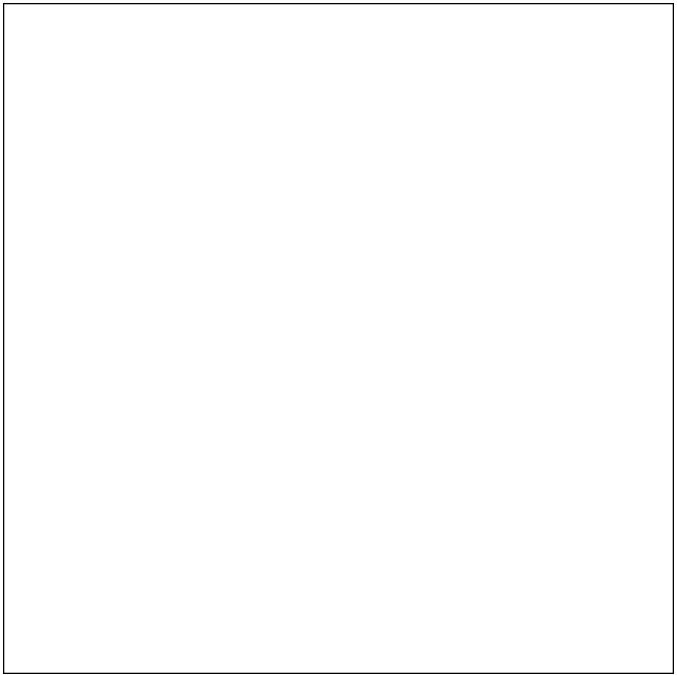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이 그 아기를 보았을때,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당나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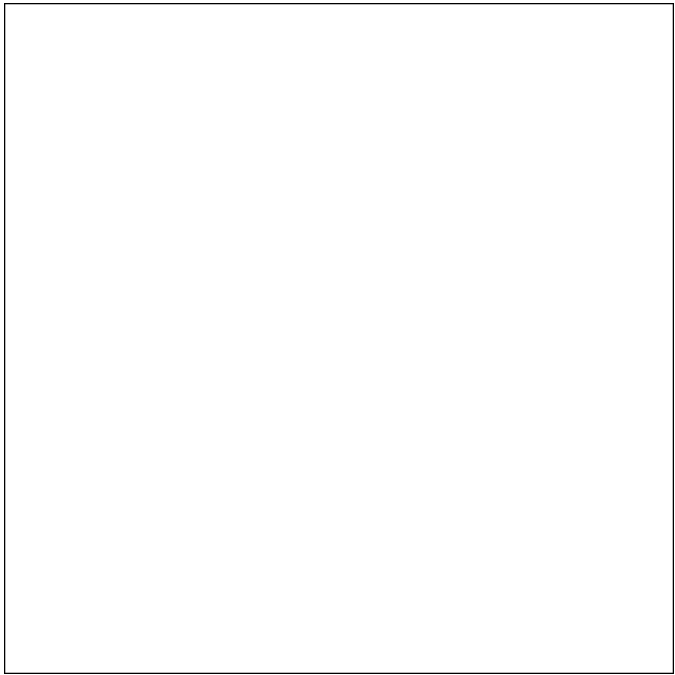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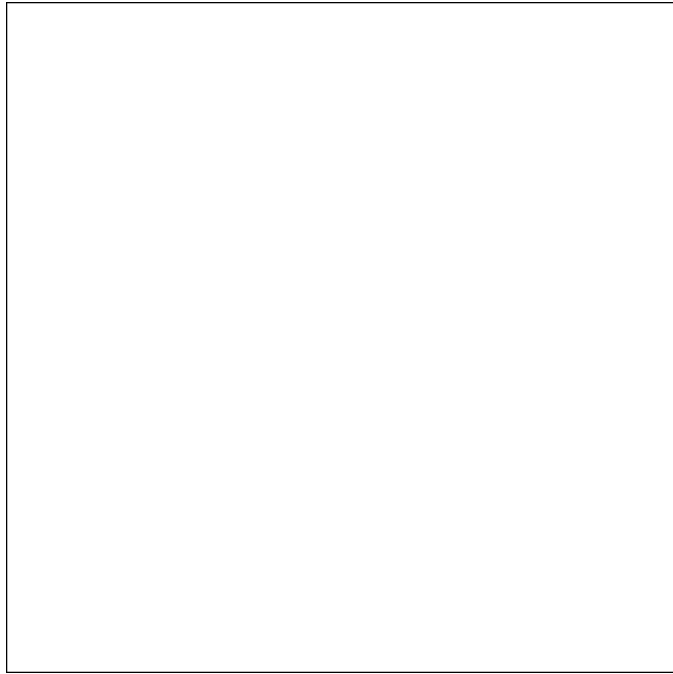
당나귀는 드디어 뭐를 해야할지 알았어요.

모두들 다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와
 이야기를 안전하게 보살피겠다고 했어, 그러나
 그렇게 해야."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저들이 뭘했는지 가지고
 룡거야!" 라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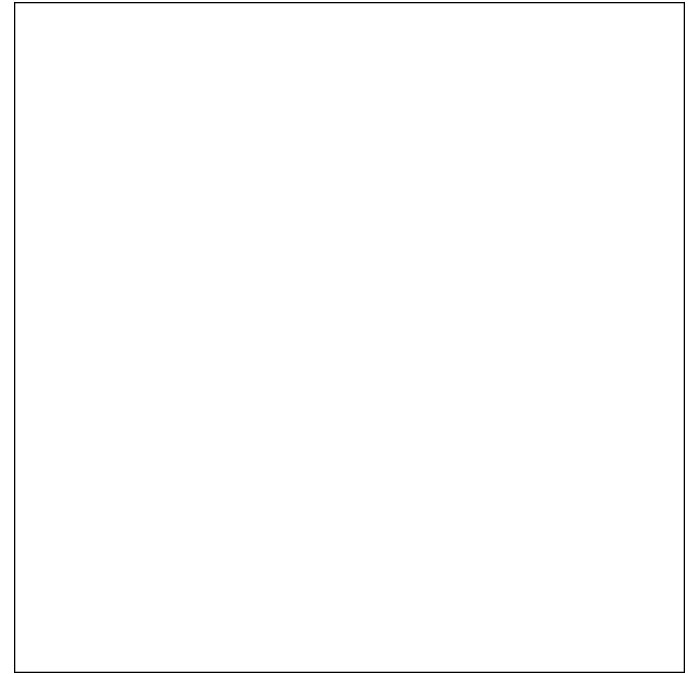


...그 구름들은 그 한아버지와 함께 사라졌어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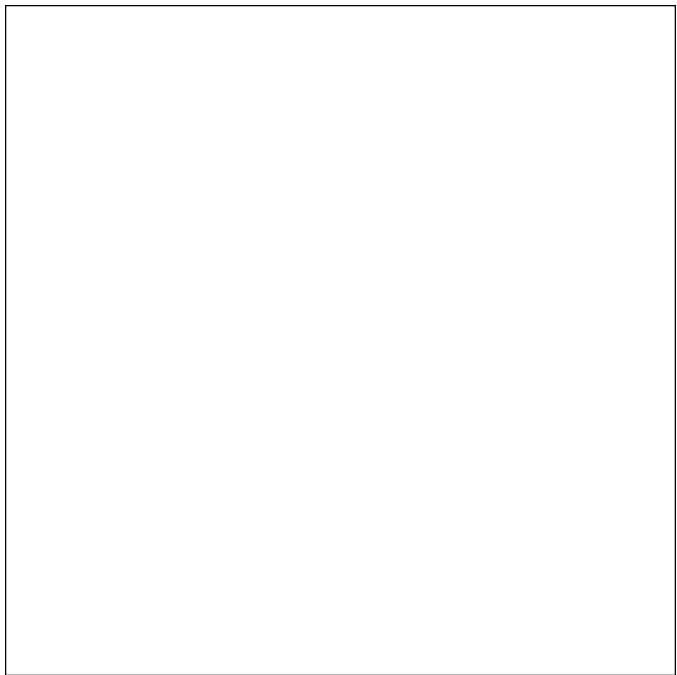


그래서 그 여성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이 이상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했어요. 그녀는 자기자신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했어요.



아주 높은 구름들 사이에서 그들은 잠이 들었어요. 당나귀는 그의 어머니가 아파서 그를 부르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당나귀가 잠에서 깨었을때...

하지만 그녀는 그 당나귀 새끼가 자기 아이라
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 또한 그 아이의 엄마라
는 것을 인정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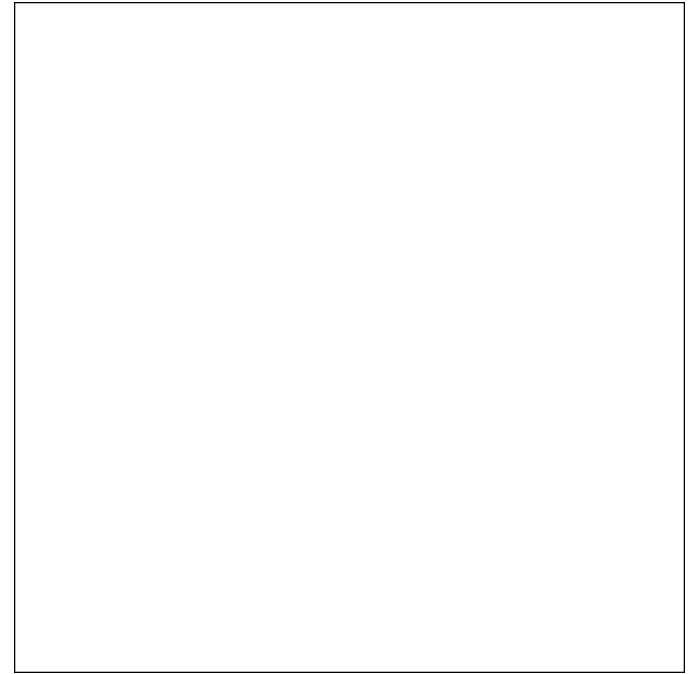


어느 날 아침, 그 할아버지는 당나귀에게 자기
를 산 꼭대기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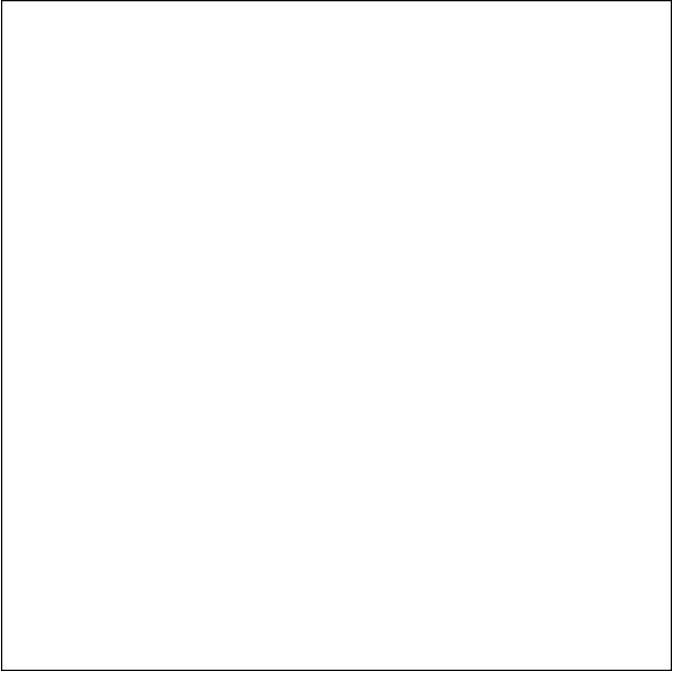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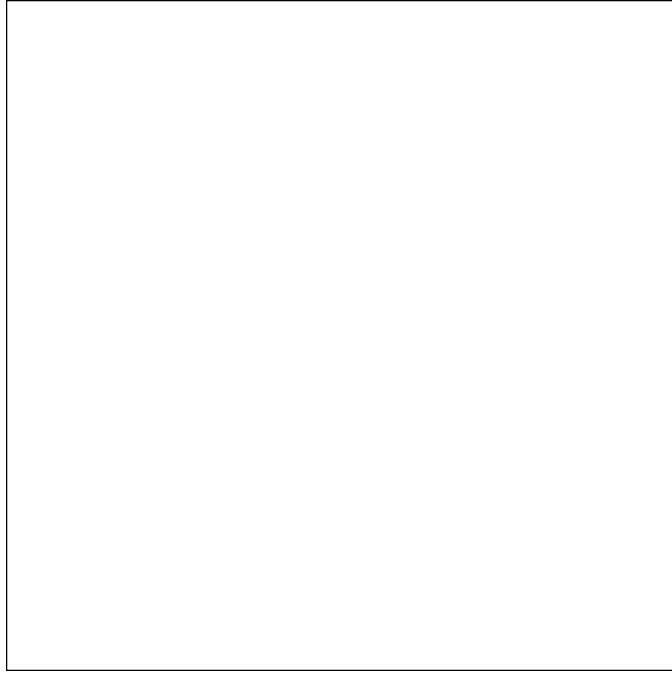
만약 그 아이가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나귀 아이는 무럭 무럭 자라서 더이상 어머니의 등에 얹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에도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자주 피곤하고 속상해 했어요. 가끔씩은 당나귀 아이에게 동물이 해야 할 일을 시키곤 했어요.



당나귀는 그 할아버지 곁에 있었고, 그 할아버지는 당나귀에게 살아 남는 법들을 배웠어요. 당나귀와 할아버지는 서로 듣고 배웠어요. 그들은 서로를 도왔고, 같이 웃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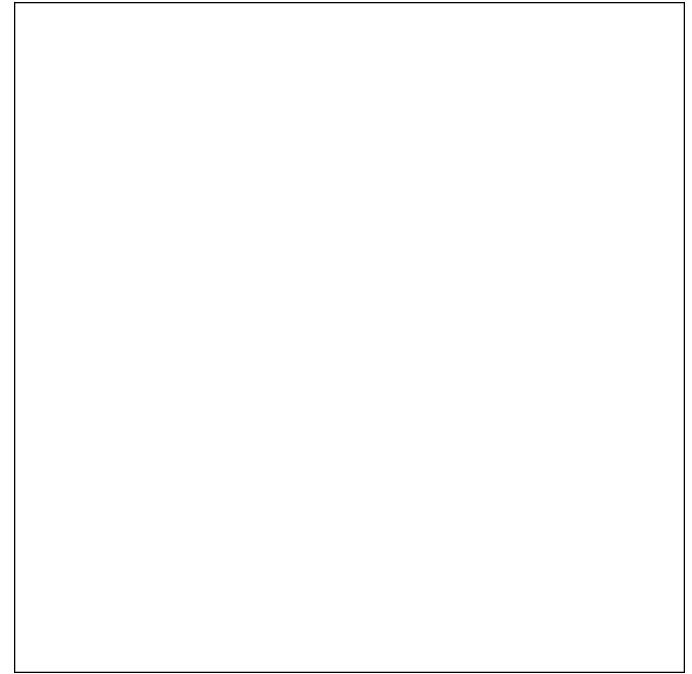
당나귀의 마음속에 헛갈림과 분노가 섞여있어
요. 그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런
게 되면 안됐고 또 저렇게 되면 안됐어요. 어느
날 당나귀는 너무 화가나서 그의 어머니를 밟
포 건어 찢어요.



당나귀가 집에서 깨었을때, 낫선 할아버지가
자기를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는 그 할아버지의 눈을 보고 나서 는 조금의 희
망을 느껴요.



당나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주 빠르게 아주 멀리 도망갔어요.



당나귀가 뛰는 것을 멈췄을때, 밤이 되었고 당나귀는 길을 잃었어요. “히하?” 그가 어둠에게 속삭이자 “히하?” 하고 에코가 들렸어요. 그는 혼자였어요. 그는 짜구려서 깊고 슬픈 잠에 들었어요.